

M&A 나선 한솔제지, 어느쪽?... “무리한 인수는 없다”

‘태림포장이냐, 전주페이퍼냐.’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 합병(M&A) 시장에서 물건을 찾아다니고 있는 한솔제지가 두 회사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림포장과 전주페이퍼를 동시에 인수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다만 자금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곳 인수 가능성은 제기된다. 두 회사 중엔 전주페이퍼보다 태림포장이 인수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한솔제지의 사업군과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태림포장이 전주페이퍼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태림포장 인수도 자금조달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한솔제지는 2일 “성장을 위해 태림포장과 전주페이퍼 인수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재무여력을 초과하는 인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를 동시에 인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제지는 지난달 18일엔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태림포장과 전주페이퍼 M&A 추진설에 대해 공시를 통해 “사업 확장을 위해 해당업체 인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이들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아예 한솔제지가 나서 “동시 인수는 없다. 무리한 M&A를 추진하지 않겠다.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수하겠다”며 시장의 선부른 추정에 못을 박았다.

그 사이 지난달 15일 증가 기준으로 1만8600원이었던 한솔제지 주가는 18일 11.02%가 급락하는 등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9일엔 1만475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한솔측은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두 회사의 인수가격 1조원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시장에서 추산하고 있는 1조원을 끌어들이는 만큼의 재무여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리하게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태림포장 추가 성장동력 확보에 ‘저울질’ 재무여력 초과하는 인수는 안해
전주페이퍼 태림포장, 골판지 경쟁력 뛰어나 전주페이퍼, 신문용지 등 제조사



끌어모으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는 “(M&A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증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M&A를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은 EBITDA(세전·이자 지급전이익) 창출금액을 고려한 재무여력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솔제지의 EBITDA는 2000억원 수준이다.

한솔제지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태림포장은 택배 등에 주로 사용하는 골판지 상자 제조 전문업체로 업계 1~2위권이다.

특히 태림포장은 골판지원지가공부터 골판지 상자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일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관련분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매출은 지난해에 6555억원을 올렸었다.

태림포장은 지난달 초 최대주주인 트리니티원(유)이 갖고 있는 지분 매각 조희공시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트리니티원은 태림포장의 지분 58.85%를 보유하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신문용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과거 한솔제지의 모태기업이었다. 한솔제지는 1965년 삼성그룹이 사들인 전주제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당시 경영난으로 전주페이퍼를 매각했다.

업계에선 한솔제지가 자금 여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두 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한다면 사양산업인 신문용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주페이퍼보다는 박스를 제조하는 태림포장에 더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주페이퍼가 신문용지 외에 소형 제품 포장에 주로 쓰이는 백판지도 제조하지만 수평적 사업군 확대와 M&A를 통한 경쟁력 추가 확보 등 다각적 측면에서 태림포장으로 기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주페이퍼는 지난해 65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2017년 기준 지원기업 생존율)

기준년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2017년	89.4 (2016)	77.6 (2015)	68.1 (2014)	58.5 (2013)	53.1 (2012)
2016년	86.9 (2015)	76.7 (2014)	65.6 (2013)	58.7 (2012)	54.3 (2011)
2015년	88.0 (2014)	75.0 (2013)	67.9 (2012)	60.8 (2011)	50.4 (2010)

(2016년 기준 일반기업 생존율)

기준년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2016년	65.3 (2015)	50.7 (2014)	41.5 (2013)	33.5 (2012)	28.5 (2011)
2015년	65.3 (2014)	49.5 (2013)	39.1 (2012)	32.8 (2011)	27.5 (2010)
2014년	62.4 (2013)	47.5 (2012)	38.8 (2011)	31.9 (2010)	27.3 (2009)

*(): 창업지원사업 수혜연도·신생연도

정부 지원 창업기업, 생존률 2배

일반기업 5년 생존률 30% 못미쳐 고용창출 효과 5만4489개로 성장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기업 2곳 중 1곳은 5년 후에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원받지 않은 일반기업의 5년 생존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 지원 기업 2만2334개를 대상으로 생존율과 고용·재무·혁신 성과를 조사해본 결과 창업 지원 기업의 5년 생존율이 2017년 기준 53.1%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28.5%(통계청 2016년 기준)의 1.9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창업 지원 기업은 2017년 기준 기업당 평균 5.55명(대표자 제외)씩 모두 3만878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표까지 포함한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489개에 이른다.

전년과 비교한 총고용 인원은 44.95% 늘었다.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은 17.88%로 일반 중소기업(1.54%), 대기업(2.41%)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기업당 평균 6.7억원으로 1

년 전보다 44.62% 증가해 일반 중소기업(11.02%), 대기업(7.93%)보다 큰 폭으로 성장했다.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기준 33.33%로 중소기업(25.38%), 대기업(15.46%)보다 높았다.

부채비율은 108.93%로 대기업(95.52%)보다 높지만, 중소기업(163.18%)보다 낮았고, 총자산 회전율은 0.6회로 중소기업(1.07회), 대기업(0.75회)보다 낮았다.

창업 지원 기업 중에서 3년 연속으로 매출이나 고용이 연평균 20% 넘게 성장한 ‘고성장 기업’은 422개로 집계됐다. 이 중 창업 후 5년 이내의 고성장 기업인 ‘가젤 기업’은 189개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을 받은 금융서비스 ‘토스’의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는 창업 사업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에 올랐다.

이외 창업 지원 기업 14곳이 코스닥과 코넥스에 상장했으며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도 2227개로 조사됐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생존율과 고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영세 소상공인 보증, 올 12兆로 ‘확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애로 지원 특례보증도 2배 ↑
올부터 강원·전북도 경영 컨설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액수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특례보증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엔 2조원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경영 컨설팅도 현재 10개 지역신보에서 올해 강원, 전북까지 늘리고 향후에는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들을 위한 보증이 원활하게, 적기에, 그리고 불편함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올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한중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호 기자

서 “올해 보증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늘려 12조원을 공급하고, 필요시엔 6000억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지역신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영세 소기업 등의 일반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신보중앙회는 이들 16개 지역신보의 보증상품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 분산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이다. 김 회장과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이 구동성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중은행들이 보다 많은 출연금을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에 출연, 보증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기관은 정부와 지방정부 출연금, 그리고 은행권 출연금을 기본 재산으로 해 소상공인 등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웅진코웨이 보름간 공기청정기 온라인 단독기획전

웅진코웨이는 3일부터 보름간 ‘공기청정기 온라인 단독기획전’을 11번가, 위메프, G마켓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AP-1516D ▲트리플과워 공기청정기 AP-2318D ▲공기청정기 AP-1018F ▲공기청정기 AP-1019F 등 총 4종의 공기청정기를 렌탈 및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다.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구매하면 정정 성능 유지에 필수적인 필터 교체 등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다. 특히 공기청정기를 일시불로 구매하면 1년간 무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는 타사와 차별화된 맞춤형 필터가 장착돼 있어 사용 공간 환경에 따른 맞춤 케어가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자사의 공기청정기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멀티액션 공기청정기는 4가지 공기 순환 기능을 갖춰 사용 공간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공기청정 모드를 선택해 맞춤형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